

터졌다 만루홈런 끼웠다 우승반지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7> 7번 타자 이범호

누구보다 간절했고 그만큼 가슴 졸여 했던 18년 차 베테랑 이범호의 첫 우승이었다. 지난 3년 이범호는 '캡틴'으로 지내며 KIA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다. 이젠 타이거즈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됐지만 그는 KIA 팬들에게는 아쉬운 이름이었다. 2009시즌이 끝난 뒤 일본 무대로 진출했던 그는 2011년 '깜짝 FA'로 친정인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한국으로 복귀했다. 많은 기대 속에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됐지만 2012년 찾아온 햄스트링 부상이 이범호를 막았다. 반복된 부상 속에 그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시즌 함께 타선을 이끌던 절친 김주찬도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마음고생을 했다. 초반 부진을 겪기는 했지만 이범호는 끝내기 안타(5월 16일 LG전), 900사사구(13번째), 연타석 홈런(7월 30일 두산전), 1600안타(23번째), 300홈런(9번째) 등의 기록 등을 만들어 착실하게 자신의 자리에 섰다. 반전의 시즌을 보내며 1위 팀의 3루수로 달렸지만 우승의 순간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시즌 최종전까지 가셔 확정했던 정규시즌 1위. 이때도 이범호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부침 겪었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한방 존재감

KS 5차전 만루포 "이 맛에 야구한다" 만끽

■ 이범호 월별 성적

구분	경기	타수	타율	득점	안타	홈런	타점	볼넷	삼진
3~4월	9	25	0.200	3	5	0	3	3	5
5월	20	69	0.333	9	23	3	12	10	16
6월	19	59	0.254	11	15	3	14	5	15
7월	21	77	0.299	11	23	9	26	12	14
8월	21	64	0.188	9	12	3	9	13	12
9월이상	25	88	0.295	14	26	7	25	9	19
총합	115	382	0.272	57	104	25	89	52	81

전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그러나 이범호는 3년간 무거운 주장 완장을 찬 채 팀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하며 팬들의 마음을 열었다. 지난 시즌에는 처음 30홈런 고지를 넘어 33개의 홈런을 터뜨렸고, 역시 처음으로 100타점을 돌파하면서 제대로 실력 발휘도 했다. 임버릇처럼 '우승'을 말했던 이범호에게는 기대 많았던 2017시즌이었다. 2016시즌 최고의 활약 속에 자신감이 넘쳤고, FA로 최정우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가세했다. 또 이범호가 애뜻하게 기다리던 '키스톤 콤비'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터였다. 그러나 이범호의 마음과 달랐던 출발이었다. 삼성과의 개막 시리즈를 위해 대구로 갔던 그는 허벅지 부상으로 두 경기만 소화한 뒤 엔트리에서 빠졌다. 4월 23일 1군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처럼 성적이

10월 2일 kt 원정에서 이범호는 실책 연발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1위를 두산에 내줘야 할 지도 모르는 중요한 시리즈였던 만루 이범호에게는 아찔했던 경기였다. 다행히 연속 실책을 지운 안치홍의 연타석 홈런이 나왔고 이범호는 "치홍이가 내 마음을 치우줬다"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정규시즌 마지막날 이범호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진짜로 끝나고 나면 소감을 말하겠다"며 정규 시즌 1위의 소감을 아꼈다.

어렵게 획득한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이었지만 이범호의 기다렸던 무대는 가시방석이었다.

초처럼 이범호의 방망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1차전에서 삼진 두 개만 적립했던 그는 이후에도 허무하게 타석에서 돌아섰다. 2017 한국시리즈 14번째 타석에서야 겨우 안타를 신고하는 등 이범호는 팀의 연속행진에도 활짝 웃지 못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이범호가 자신의 만루 본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5차전 3회 2사 만루에서 이범호가 타석에 섰다. KBO리그 만루홈런 최다 기록(16개) 보유자인 이범호였지만 앞선 시리즈 타율은 0.083.

이범호는 기다릴 것도 없이 '가을 사나이' 두산 니퍼트의 조구 슬라이더를 공략해 잡실 담장을 넘겼다. 두 손을 번쩍 든 채 그라운드를 돈 이범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극적으로 우승을 확정된 뒤에도 이범호는 "너무 좋지 않아서 미안했다. 홈런이라고는 생각했는데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제발 넘어가라고 빌었다"며 눈물을 글썽했다. "이 맛에 야구를 하는 것 같다"며 우승의 순간을 만끽했던 18년 차 이범호의 '반전 2017시즌'이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두산, 니퍼트 아웃... 린드블럼과 계약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11일 우완 조슈 린드블럼(30·사진)과 총액 145만 달러에 계약했다.

미국 출신의 린드블럼은 2015년 롯데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했다. 그 해 32경기(210이닝)에서 13승1패 평균자책점 3.56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30경기(177.1이닝)에서 10승13패 5.28의 평균자책점을 찍었다.

린드블럼은 지난 7월 KBO리그로 돌아왔다. 이후 패네티레이스 12경기(72.2이닝)에서 5승3패 3.72



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여전한 구위를 뽐냈다. 포스트시즌에서도 2경기에 등판해 위력적인 피칭을 했다. 두산 관계자는 "키 195cm, 체중 105kg의 건장한 체격에 젊은 나이, 위력적인 구위 등 린드블럼이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두산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함께한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와는 결별하게 됐다.

/연합뉴스

정운찬 전 총리 KBO 수장 됐다

22대 총재 선출 의결

정운찬(70·사진) 전 국무총리가 한국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KBO 수장에 오른다. KBO는 11일 제22대 총재에 정운찬 전 총리를 선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BO는 정관 제10조(임원의 선출)에 따라 이날 총회 서면 결의를 통해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정 전 총리에게 차기 총재의 중책을 맡기로 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는 그동안 12명의 총재가 역임했으나 국무총리 출신이 총재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KBO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총재로 추천받았다. KBO는 정 총재의 선출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향후 신임 총재와 협의해 이·취임식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 신임 총재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게 된다. 구단을 보유한 기업인이 아닌 외부 인사가 KBO 총재에 오른 것은 유영구 전 총재 이후 6년 만이다.

정 총재는 '야구광'으로 잘 알려졌다. 시즌 중에 수시로 경기장을 찾아 관전하고, 2012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 시구를 하기도 했다. 라디오 특별 해설을 하고 2013년에는 야구를 주제로 한 '야구예찬'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발간할 정도로 야구에 대한 애정이 깊다.

/연합뉴스



평창 동계패럴림픽 메달 공개

한글·평창의 자연 모티브 디자인

한글을 모티브로 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메달이 11일 공개됐다.

패럴림픽 메달의 규격은 지름 92.5mm, 두께 최소 4.4mm에서 최대 9.42mm로 제작됐으며, 메달 앞면은 패럴림픽 엠블럼 '아지토스'와 함께, 패럴림픽 규정에 따라 대회명 '2018 평창(PyeongChang 2018)'을 점자로 새겨 넣었다.

또 개최도시 평창의 구름과 산, 나무, 바람을 각각 패턴화해 촉감으로도 평창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측면엔 '평창동계패럴림픽아공일팔'의 자음인 '포오오오오포로로로로포포포포포'를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 뒷면은 평창패럴림픽 엠블럼과 아지토스를 좌측에, 우측에는 세부 종목명을 표기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과 가장 다른 점은 표면이 수평으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올림픽 메달은 사선으로 구성됐지만, 패럴림픽 메달은 패럴림픽 정신인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수평으로 구성했다.

메달을 목에 걸 리본은 동계올림픽과 같은 우리 전통 한복 특유의 감사를 소재로 활용했다. 아울러 한글 눈꽃 패턴과 자수를 섬세하게 적용했다.

/연합뉴스

'슈퍼 루키' 이젠 최혜진

효성 챔피언십 신인 첫 개막전 우승 KLPGA 새 역사...세계랭킹 13위로

2017시즌 박성현(24)에게 붙었던 '슈퍼 루키'라는 별명이 이제 최혜진(18)에게 넘어가게 됐다. 최혜진은 지난 10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우승했다.

KLPGA 투어 사상 신인이 해당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한 것은 2018시즌 최혜진이 최초다. 이 대회는 올해 12월에 열렸지만 KLPGA 투어 달력으로는 2018시즌을 여는 개막전이었다.

최혜진은 2017년을 이미 '최고의 해'로 장식한 선수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US여자오픈에 나가 준우승했고, KLPGA 투어에서도 2승이나 거뒀다.

8월 프로로 전향한 최혜진은 이후 KLPGA 투어 2017시즌 5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그의 정식 '신인 신분'은 2018시즌부터 적용된다.

최혜진이 '루키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하면서 신

인으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상금 1위, 올해의 선수상, 신인상을 휩쓴 박성현에게 붙었던 '슈퍼 루키' 별명이 2018년에는 최혜진에게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5타 차를 뒤집고 역전 우승을 일궈낸 최혜진은 "루키 시즌 스타트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우승을 원하기는 했지만 이번 대회는 그냥 5위 이내, 10위 이내에 들자는 생각으로 쳤는데 기다리던 첫 우승이 이렇게 빨리 나와서 기분이 좋다"고 웃어 보였다.

특히 신인 최초로 시즌 개막전 정상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다"며 "신인 시절 개막전이 아니면 다시 도전할 수 없는 것이라 더 뜻깊은 것 같다"고 스스로 칭찬했다.

한편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한 최혜진의 여자골프 세계랭킹은 13위가 됐다. 자신의 역대 최고 순위다.

/연합뉴스



10일 베트남 호찌민의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6456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혜진이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영 국제그랑프리 금

에페 결승서 정진선 눌러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금메달리스트 박상영(22·한국체대)이 2017 에페 국제그랑프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상영은 1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정진선(화성시청)을 3-2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지난 7월 세계선수권대회 에페 개인전에서 64강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8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배를 마시며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이를 간 박상영은 지난 10월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2017-2018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대회에 자비로 출전해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우승하며 부활을 알렸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하며 포효했다.

/연합뉴스